

## 초기의 적극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

(발병과 그 예후)

가족 중의 한사람이 정신분열병에 걸리면 나머지 가족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떤 것들일까? 필자가 경험한바 많은 수의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아 가며 ‘궁극적인 적응’ 또는 ‘철저한 배척’, 또는 남들이 모를 곳에 ‘안전하게 격리’하는 수단을 강구한다. 여기서의 안전이란 ‘환자의 안전’이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의 안녕 및 대외적인 체면’을 의미한다.

첫째, 그들은 너무 놀라고 근심 걱정을 하는 나머지 당사자인 환자보다도 오히려 잠을 더 못 잔다. 그들은 병식(病識:자기의 병에 대해 스스로 아는 일)이 없어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환자를 어떻게 달래느냐로 고민에 빠진다. 대개 대학병원 정신과나 특히 지명도가 높은 의사를 찾아 동분서주한다.

그러나 진료가 끝난 후 확실히 정신 분열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그들 중의 상당수는 “아닐 수도 있다”, “소문만큼 잘 보는 의사가 아니다”라며 같은 진단이 나오는지 보려고 다른 병원을 찾거나, 정신병을 잘 고친다는 약국이나 민간요법을 기웃거리게 된다. 여기에는 “내 가족이 정신병일 리 없다”고 고집하는 부정(否定)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그 전까지는 무심코 들던 여러 가지의 속설(俗說)에 귀가 번쩍 뜨이게 된다. “누구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더니 바보가 되었다더라”, “독한 약을 써서 회복 불능이 되었다더라”라는 말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어디의 누가 마귀를 물리치는 영험한 힘이 있다”는 소문을 따라 가족 전체가 그곳의 신도(信徒)가 되다시피 하며 매달리는 경우도 있다. 한편 “독한 양약을 쓰면 사람 버린다”며 한방 치료만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다.

셋째, 대부분 이러 저러한 이유로 부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의 적기를 놓친 다음 병원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급성 정신병의 발작 후 대개 적당히 치료하거나 방임해도 꽤 나아갔다는 인상을 주는 환자는 대부분 정신 분열병 환자가 아니라 병 자체의 경과가 나쁘지 않은 단기 반응성 정신병이나 히스테리성 발작, 기분 장애(정동 장애) 정도이다. 정신 분열병에는 특히 적기(Golden time)의 치료가 중요하다.

정신 분열병을 앓으며 6개월 여 이상을 부적절한 치료로 질질 끌면 그 환자는 지각, 사고, 통합하는 능력에 중대한 변화가 온다. 이런 변화는 그 후의 치료가 매우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평생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더 많다.

일부 무당이나 도인이라 불리며 치료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병에는 내 신(神)이 통하지 않는다. 정신과로 데려가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든 ‘실성한 사람’도 경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보통 정신 분열병 환자의 대부분은 그 병력을 거꾸로 추적해 볼 때 짧게는 1, 2개월에서 길게는 4, 5년 이상의 전구기(前驅期)를 갖는다.

사회적인 고립, 일이나 학업의 의욕 상실, 개인위생의 저하, 이인증(주변의 환경이 변해 가는 느낌), 때로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상념에 몰두하여 칩거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수면 각성 주기의 변화가 와서 밤에는 잠들지 못 하고 낮에는 사람을 피해 잘 곳을 찾는 이상 행동을 보인다. 증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환자는 이해할 수 없는 분노 발작을 보이거나 혼잣말을 지껄이는 등의 확연히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피해망상이 심해지면서 박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난폭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환청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며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정신 분열병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약 30%정도는 2년 내에 완치 또는 완치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약 20%정도는 어찌되었건 만성적인 악화로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나머지 약 50%는 만성적으로 악화와 호전을 반복(불완전 관해)하며 일생을 보낸다. 그런고로 정신 분열병은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정신 분열병에 걸리면 결국에는 대형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일생을 마치게 된다”라고 믿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정신 분열병에 걸렸다가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약 30%의 환자는 자신이 결코 정신병원 신세를 졌다고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철저한 비밀에 부치기 때문이다. 당연히 환자가 외병 증일 때 옆에서 지켜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과거에 정신분열병 환자였는지 아니었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